



2004가 기억하는 작가와 책 세상

장하준

한국의 구조조정을 향해 싸라

올 한 해 한국 경제계에서 장하준 교수의 존재는 조금 뜻밖이었다. 27살 때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로 부임한 장 교수는 2003년 초 휴직계를 내고 '한국경제의 IMF 이후'를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고려대에서 교환교수로 활동하던 장 교수는 올해 6월에 《사다리 걷어차기》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 외에도 《개혁의 뒷》과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내며 국내 경제개혁론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먼저 《사다리 걷어차기》(원제 : *kicking away the ladder*)는 산업보호정책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한 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미명하에 정작 후발국에겐 신자유주의와 '시장

을 전도하고, '개방'을 강제하는 그들의 위선을 꼬집고 있다. 2002년 영국에서 영어로 첫 출간된 이 책은 작년 '유럽진보정치경제학회(EAE PE)'의 뮌헨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두 번째 저서인 《개혁의 뒷》에서 장 교수는 현재의 한국 경제는 개혁이라는 '뒷'에 걸린 상태라고 진단했다.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든 데다,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을 무절제하게 도입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오히려 투자 부진과 소비 위축에 이른 실업난과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빈부격차의 가속화라는 결과만 낳았다고 단정했다.

싱가포르국립대학 경제학과 신장섭 교수와 함께 쓴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 무엇이 문제인가》 역시 1997년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의 통념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진정한 위기의 원인을 밝히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IMF와 한국정부가 주도한 구조조정이 무리하게 영미식 시스템을 이식하여 한국경제의 성장 활력을 잠재운 근본적인 결함이 있었음을 논증한다. 이는 최근의 투자부진과 고실업, 빈부격차의 확대라는 심각한 경제문제로 재생산되고 있다. '주식회사 한국' (Korea Inc.)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한국 경제모델의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운 경제시스템으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세 권의 책에서 알 수 있듯 경제문제에 대한 장 교수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경제제도건 그 나라가 처한 역사적 상황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재벌문제다. 한때 우리는 재벌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벌을 없애는 과정에서 재벌이 우리 사회에 미쳤던 긍정적인 영향마저 잘라내는 우를 범했다고 장 교수는 지적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담배연기 자욱한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어젖힌 것처럼 한국경제의 미래에 대한 논의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다.

장 교수는 2년간 한국 생활을 마치고 7월 초 영국으로 떠났다. 전화통화에서 장 교수는 간단히 앞으로의 출간계획을 밝혔다. 먼저 지난 10여 년 간 동아시아 관계로 썼던 글들을 모은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Experience : The Miracle, the Crisis, and the Future》라는 책이 내년 상반기에 런던의 Zed Press에서 나올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주력하고 있는 제도발전과 경제발전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의 결과물들을 향후 2~3년 내에 학술논문과 책으로 출간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장 교수는 인도 델리대학의 나야 총장(현 공동운영위원장)과 함께 '함께 가는 세계화'라는 모토로 제3세계 중심의 국제포럼을 준비중에 있다. **이진우**

정리 | 신동섭기자

장 하 준 이 읽고 권 하는 책

백 년 동안의 고독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지음
안정효 옮김
문학사상사
458쪽
값 8,000원



“남미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은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작가의 이야기 솜씨가 뛰어나다. 올해로 다섯 번째 읽었지만 언제 읽어도 새로운 책이다.”

1982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으로 마르케스는 창세기와 라틴아메리카의 역사를 융합해 마술적 리얼리즘을 탄생시켰다. 마을에서 도시로 팽창하다가 신기루처럼 사라져간 마콘도를 무대로 한 집안의 백년에 걸친 역사와, 기이한 자녀를 애워싸고 일어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장 길 산 (전12권)

황석영 지음
창비
각권 320쪽 내외
값 96,000원



“《백년 동안의 고독》과 함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을 다시 한 번 읽었다. 황석영의 ‘이야기 솜씨’는 정말 세계 수준이다.”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소설. 1995년 개정판을 낸 이래 십 년이 흘러 남아 보이는 글자를 읽기 편하게 옮기고 작가가 줄거리 위주로 장을 새롭게 나누어 끝부분 〈종장 귀면〉과 〈운주미륵〉의 일부를 수정해서 개정판으로 나왔다.

Living to Tell the Tale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 지음
Knopf.
미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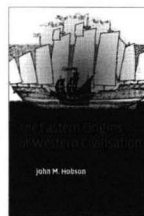
“마르케스 자서전의 제1부를 영어 번역으로 읽었다.

그의 인생은 “마법적 사실주의”(magic realism)를 추구하는 그의 소설들만큼이나 극적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삼부작으로 쓰고 있는 자서전의 첫 권이 ‘이야기하는 인생 Living to Tell the tales’이란 제목으로 미국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은 그가 1927년 태어나 작가 생활을 시작하고 지금은 그 부인이 된 한 여자에게 청혼을 한 1950년대에 이르기까지 마르케스의 삶을 다루고 있다.

The Eastern Origins of Western Civilization

존 홉슨 지음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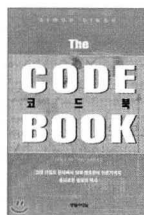


“자세한 역사적 자료를 통해 서양 근대문명의 발전에서 동양의 기술과 지식이 얼마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를 보여준다. 우리의 서양 콤플렉스를 극복하는데 유용한 책이다.”

저자는 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던 많은 발명이 아시아에서 왔고, 아시아 특히 중국은 19세기까지 유럽만큼 발전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현대 문명의 발전에 많은 비유럽 국민이 공헌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코드 북

사이먼 신 지음
이원근·김희정 옮김
영림카디널
544쪽
값 15,000원



“케임브리지대 물리학 박사이면서 BBC TV 프로듀서인 저자가 고대부터 현대까지 암호의 역사를 과학적이면서도 알기 쉽게 서술한 책이다.”

암호를 만들어낸 사람들, 그리고 암호를 해독하려는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의 사건과 2차 대전에 얽혀 있는 암호의 역사, 유전자 암호를 해독한 암호 해독가의 활약상 등 문자해독 과정과 그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다 빈치 코드 (전2권)

댄 브라운 지음
양선아 옮김
베넬스만 코리아
각권 368쪽
각권 값 7,800원



“종교적 논쟁, 미술사, 현대 기독교계의 권력 갈등을 교묘하게 조합한 책. 보조사 매우 빨라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잘 짜인 줄거리로 끝까지 긴장을 풀지 못하게 한다.”

2003년 3월 첫 출간 이후,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약 700만 부가 판매되었다고 알려진 화제의 책이다. 루브르 박물관장 소니에르의 살해사건으로 시작하는 이 소설은 주인공이 거대한 음모에 휘말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술작품에 숨겨진 단서를 추적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어떤 영화를

옹호 할 것인가
강한섭 지음
부키
340쪽
값 8,000원



“영화평론가인 저자가 지난 20여 년 간 출판한 영화 평들을 모은 책. 영화를 비롯한 대중문화를 이해하는데 신선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

영화평론가 강한섭 씨가 평론활동 10년째를 맞이한 해에 쓴 글모음집이다. 1988년 월간중앙 복간호에 실린 첫 번째 관전기 ‘할리우드 자본이 밀려온다’에서부터 1997년까지 써온 영화평론·시론이 실렸다. 1990년대 한국영화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